

【Report on Tohoku Volunteer Program 2012】

Mother Tongue (Korean)

名前(Name) 杜 恩波 (DU, Eunpa)

1. What impression did you have on Tohoku after 1.5 year of disaster?

쓰나미의 괴력은 정말 어마어마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자동차 더미와 뼈대만 남은 건물들은 마치 쓰레기 처리장을 연상케하였다. 재해현장을 둘러보면 유독 눈에 띄는 한 학교건물 벽에 남아 있는 쓰나미 자국을 볼 수 있다. 높은 길이의 쓰나미 자국은 사건 당시 10m 가 훨씬 넘는 파도가 덮치던 순간이 상상돼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영화 속 한 장면으로만 여겼던 것들이 내 눈 앞에 펼쳐져 있었다. 나는 자연 피해가 현실 속에서도 일어 날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움과 자연 재해 앞에서 인간의 무력감을 느꼈다. 자연재해로 입은 상처는 건물만이 아닌 사람의 마음까지 상처 입혔다. 해당 사람들의 상처가 조속히 치유되고 더 이상 이러한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한다.

2. Please describe your experiences and tell us your reflection of them (for example, the work which you were engaged in, people's conditions you observed, the stories you heard from them, and any other interesting experiences you would like to share with readers of this report).

이곳 사람들은 재래식 어로 작업을 통해 생계유지를 하고 있다. 어로 작업 대상은 한국에서 가다랑어라 불리는 가즈오 생선과 굴을 키우고 있다. 가즈오 어로 작업과는 다르게 손이 많이 가는 굴 양식은, 죽은 굴 껍데기를 올망졸망 줄에 꿰매어 물밑에다 뒤롱뒤롱 드리워놓아 키우는 수하식과 갯벌에다 넓적한 돌을 적당한 간격으로 던져놓는 투석식, 이 밖에 수평망식 등 다양한 양식법이 있다. 이곳 어부들은 늘 물속에 드리워 기르는 드림식(수하식)을 사용했다. 우리는 죽은 굴 껍데기에 줄을 꿰 수 있도록 작은 구멍을 만드는 일을 맡았다. 이 일은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양의 굴 껍데기에 구멍 낸 만큼 현지인들과의 사이도 점점 돈독히 쌓였다. 처음 현지인들과의 관계가 원만스럽지 못하면 어쩌나 내심 걱정을 하였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가끔 이들의 사투리를 못 알아들어 의사소통에 무리가 있었지만 모두들 상냥하고 언제나 쾌활한 분들이었다. 하지만 밝은 모습 뒤엔 쓰나미의 피해로 인한 상처가 아직도 완전히 치유되지 못한 채 남아있었다. 평생을 함께해온 소중한 것들은 거대한 파도에 의해 물거품이 되었고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한 어부는 자식과도 같았던 생선과 굴이었으니 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은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팠다고 한다. 그 아픔은 굴을 먹을 때까지 눈물을 고이게 한다고 많은 고충을 털어 놓았다. 어부들의 일을 체험하고 이들의 솔직한 심정을 듣고 나니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에 우리가 얼마나 손쉽게 수산물을 먹을 수 있는지 알게 되었고 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3. What did you learn from Tohoku and what would you like to suggest to your country people in case of natural disasters that might happen in your country?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한 활동에 그치지 않고 큰 인생 공부가 되었다. 어부들은 지칠법한 삶에 굴하지 않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생활을 한다. 심지어 쓰나미가 덮쳐도 절대 좌절만 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들의 일터는 행복의 원천이었고 그 행복을 지키려는 모습과 매사 긍정적으로 해쳐나가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쓰나미로 인해 큰 피해를 입어 인간의 무기력감을 느꼈었지만 그들의 활동적인 모습을 볼 때면 왠지 모를 인간 승리를 느끼게 된다.

이렇게 밝게 해쳐나가는 모습은 어부들에게서만이 아닌 다른 봉사자들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었다. 요즘 자기일 밖에 모르는 세상이 있는 반면 모두들 함께 힘든 내색하나 없이 즐겁게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봉사활동을 하는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한사람의 밝음은 또 다른 사람을 밝게 만들고 행복을 나눔이 아닌 공유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국은 일본과 같이 큰 지진도 큰 쓰나미도 지금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자연피해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임을 잘 모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잘 모른다고 하여 무관심인 상태로만 계속 유지되면 안 될 것이다. 만약을 대비해 대책을 마련해두고 우리나라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은 버려야 한다. 그리고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항상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공존하며 살아야함을 알아두자.

4. Your message to your country people

더불어 사는 세상, 모든지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해결하는 것이 보다 덜 힘들고 즐거운 일을 겪을 수 있다. 함께 한다면 기쁨은 2 배로 커지고 슬픔은 반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여러분도 함께하면 어떠실런지요?